

지자체 등 공공부문 승용차요일제 의무화

신(新)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 승용차요일제가 의무화되는 등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경제절약조치가 시행된다.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절약운동이 우선 추진된다. 또 경차와 소형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에너지업계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정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민간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여름철 냉방온도(26~28℃) 준수, 여름철 간소복 착용 등 의무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도 서남해안에

조선산단 확대 조성

전남도가 중형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는 서남해안에 조선산업단지를 대폭 확대 조성한다.

도는 최근 서남해안 1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조선산업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중형급 5곳과 소형급 4곳 등 모두 9곳이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 기업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중형급 조선소 입지 타당성이 높은 곳은 서부권의 해남 문내(180만평), 신안 지도(30만평), 신안 압해(18만평) 등 3곳과 중남부권의 고흥 도양(15만평), 동부권의 여수 돌산(12만평) 등이다. 또 소형급 조선소 입지는 서부권의 해남 황산(3만 6천평), 중남부권의 장흥 회진(3만평) 등 2곳, 동부권의 여수 돌산(2만 8천평) 등 모두 4곳이다.

도는 그동안 해남 화원에 대한조선, 진도군내에 고려조선, 신안 지도에 신안중공업 등 3개의 중형조선소를 유치했으며 대불산단에 현대미포조선 등 59개의 기자재 업체를 유치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역·기초의원 후보 명단 추가분

광주 광역비례대표
황차은 38·민노당
민노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 대변인

장흥 기초의원
▶가선거구
김학대 49·무 기초의원

광주일보·KBC 공동

서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광주일보와 KBC는 19일 오후 6시부터 열린우리당 김종식, 민주당 전주연, 민주노동당 강기수, 무소속 신현구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어마을 조성 등이 이슈로 등장, 후보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모두발언
▲김종식은 지난 임기 동안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해 6백 30억을 확보하는 등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한번 서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

▲신현구는 고루한 행정관료 출신의 구청장으로는 서구를 일으킬 수 없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으로 바뀌어야 서구가 발전한다.

▲전주연=민원 현장 등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발로 뛰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 서구 내 신·구도심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강기수=지금까지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공통질문
▲사회=서구 내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그 해결책은.
▲김종식은 무엇보다 주차공간부족이 문

선관위·박광태 후보 ‘문근영 딜레마’

선관위, 홍보모델 기용... 박후보에 홍보물 사진 삭제 요청

박후보측, 선관위 입장 고려 사진 스티커로 가릴 듯

“중앙선관위가 박광태 광주시장 선거 운동을 도와준다?”

국민여동생 문근영(19·성균관대 1) 때문에 선관위와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가 고민에 빠졌다. 뿐 아니라 문 양 본인도 난처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문 양을 모델로 한 TV와 라디오 광고 ‘가서 만나요’를 내보내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연히도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gwang-tae.net)와 홍보물(선거 공보)에 박 후보와 문양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박 시장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광주선관위의 조언을 받고 문 양측의 동의를 얻

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투표 참여 광고가 자연스럽게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 측은 박 후보 측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진을 삭제해 줄 것과 홍보물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이 일자 박 후보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삭제 요청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홍보물은 이미 제작이 완료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54만부(9천여만원 상당) 이상 되는 홍보물을 다시 만드는 것은 물리적·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부재자용 홍보물(선거공보)은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도 해당 광고 제작에 수익원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난감한 처지다. 다른 정당도 항의도 예상된다. 문 양의 소속 사도 문양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 측으로부터 사진 부분에 다른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서 배포하라고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자니 홍보물이 엉망이 되고 거부하자니 선관위 측에 민보일이 염려되는 것이다. 선관위와 박 후보 측은 19일 오후 7시 현재 최종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박광태 후보가 개인 선거운동보다는 광주출신인 문 양의 좋은 이미지 등을 감안해 문 양 사진을 가리고 홍보물을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선관위의 요청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북 미사일 발사준비’ 포착

한미 정보당국은 급주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을 포착하고 북측의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북 정보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는 KH-11 군사위성 등 감시장비를 통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 미사일기지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미사일로 추

정되는 물체가 이동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특히 이 물체는 외관상 길이가 30m가 넘는 것으로 보여 대포동 2호 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포동 2호 개량형’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동 2호는 전장 32m, 사거리가 4천300km~6천km로 알려져 있지만 대포동 2호 개량형의

사거리는 1만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4차 장성급회담 분위기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이 회담 첫날부터 서해 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를 고집하고 다른 쪽에서는 미사일 발사준비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연관된 전술에 따른 것으로 보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8가지 군사분야 합의사항 포괄협약란 카드로 맞섰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찢겨진 선거 현수막

1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사거리 주변에 나붙은 지방선거 후보들의 현수막이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자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찢겨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재래시장 활성화·영어마을 조성 이슈



김종식 마북동 탄약고 조기 이전 추진
전주연 신·구도심 양극화 해소 노력
강기수 신호체계 바꿔 교통난 해결
신현구 양동시장 관광특성화 주력

제다. 그리고 구민들의 교통의식이 희박한 것도 문제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김기수=교통문제는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도시의 문제다. 신호체계와 택시승강장 체계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주연=광천2교 하부도로를 개선하는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다.

▲신현구=신세계 백화점 진출입 입구를 장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상호정책토론
▲신현구=교육지원예산 3%를 확보하겠다. 또 도서관을 확보하겠다. 양동시장을 활성화해 관광특성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전주연=약취하는 환경시설 처리 방법은.

▲신현구=그런 곳은 약취관리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결하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보완 후 이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기수=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겠다. 임기 중 두번째로 금호동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 장애인, 노인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보건진료소를 건설할 것이다.

▲신현구=참여예산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김기수=참여예산제는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주민이 집행과정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전주연=교육·복지·일 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영어마을 조성과 수능 인터넷 방송을 기획하겠다. 노인복지회관 건설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김종식은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재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전주연=대학교 안이나 폐교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장기적으로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슈퍼마켓 등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김종식은 마북동 탄약고를 조기 이전하겠다. 서구 내 남녀고등학교를 증설하겠다. 지역균형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하겠다.

/정리=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시 설

반 FTA 미 원정시위는 한미분쟁 부른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이 다음달 초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D.C.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는 소식은 국내 반 세계화, 반 신자유주의 세력의 행태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고있다는 걱정을 안긴다.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 장관이 어제 담화문을 내고 시위계획 철회를 촉구 했지만 이들이 정부가 발린다고 원정시위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의 시위계획은 여중생 장갑차 희생사건 이후 국내 이른바 반미 자위와 세력들이 수행하고있는 일련의 투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광태 대추리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사태에서 보듯 폭법으로든 선관위의 요청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부간의 모든분야에서의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미국 조야로 하여금 한국내 반미정서를 실제 이상으로 인식

하게끔 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담화에서 지난해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때 한국 원정시위대가 폭력시위를 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시민단체의 미국 원정시위를 우려했는데, 이는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미국 연방수도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다자간 회담인 WTO 회의에 대한 시위와는 달리 특정 국가를 겨냥한 시위다. 더욱이 미 공안당국은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벌일 경우 반 테러법에 의해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했다. 이는 국가이미지 훼손 정도가 아니라 한미간 직접분쟁을 유발케 된다. 시위대가 구타당하고 체포되는 장면이 보도된다면 국내 반미정서는 커질수 밖에 없다.

당국의 엄중한 사전저지와 함께 필요 장애티로 작용하고 미국 조야로 하여금 한국내 반미정서를 실제 이상으로 인식

자기비판 용납 안하는 진보진영의 파시즘

광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보도하는 진보언론들이 균형있는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가 진보언론들의 못매를 맞고 공동대표직을 사퇴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국정브리핑에서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등 진보매체들이 광택 시위 과정에 대해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언론들이 광택 법대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시위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면서 “광택사태를 ‘전장’으로 표현한 것은 선정보도의 전횡이며 광주항쟁에 비유한 것은 극단적 저항을 자극하는 것”이라고까지 비판했다.

여기에 인터넷 기자회견 등도 반박, 비판성명을 냈고 일부는 ‘김동민은 무식인가 파렴치인가’라는 공격적 글을 발표하며 김씨에 대

해 ‘타락한 지식인’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비판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파시즘적 행태를 목격하고 섬뜩함을 느낀다. 그 자체로 우리나라 진보언론단체의 간판격인 민언련의 대표를 맡고 있던 한 지식인이 “균형보도”라는 원칙에 입각해 발표한 글이 ‘배신’ ‘타락’으로 치부되며 집중포화를 맞은 것이다.

민언련이 내놓은 사과문이란 것도 기가 막힌다. 민언련은 “결과적으로 개혁 진보진영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교수의 비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적진분열’이 잘못이라는 논지다.

진보진영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아직 우리사회에 제시한 바 없다. 그러나 이정도의 비판을 용납 않는 사회를 꿈꾼다면 국민은 너더러칠 것이다.

5·31 지방선거 현장

광주시장후보 ‘장애인 토론회’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9일 오후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조영태, 민주당 박광태,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등 광주시장 입후보자들을 초청, ‘장애인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광주시 예산의 1%(2006년 기준 207억여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 예산을 임기 내에 1.5~2%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조속한 제정 등을 각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시원 래저·휴양수요를 겨냥한 관광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전남 친환경농 문제점 지적

○~박종두 민주노동당 전남지사 후보는 19일 친환경농업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이 과도하게 관주도의 성과위주로 추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실적부풀리기, 허술한 인증관리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그 대안으로 ▲생산자의 참여 속에 현실을 고려한 목표 설정 ▲민간주도의 시·군별 친환경농업지원종합센터 설치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인 육성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재균씨 이형석후보 지원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에 도전했다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때문에 좌절했던 김재균 광주시장위원장(전 광주 북구청장)이 같은 당의 이형석 북구청장 후보 지원을 위해 19일 선거연설원으로 등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廣州市報사 2부 20-21(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